

◇기획... '광역의회 선거'에 대한 민주진영의 대응 평가

대중투쟁으로 나아갈 길

1. 서론

모두에게 충격과 의아함을 안겨 주었던 광역 의회 선거가 끝난지도 두달이 지났다. '민자당의 압승'으로 현상화된 선거 결과는 선거전에 형성되었던 계급대립관계를 변화시켜 놓았다. 즉, 5월과 달리 민자당이 정세의 주도권을 확보한 채 자신의 정치일정을 별 무리없이 진행시켜 나가고 있으며, 보수야당의 경우는 선거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속에서도 자신의 권력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여당과의' 타협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정세는 6공 자체에 대한 항거로 폭발되었던 5월 투쟁이 동력으로 해결되지 못함으로 인해 계급들의 가능성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5월 투쟁과의 연관속에서 광역 선거를 평가하는 작업은 새로운 격들을 준비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

광역 선거를 평가함에 있어 가장 주목해야 할 지점은 선거 결과일 것이다. 왜냐하면 광역 선거 결과는 5월 투쟁이후 대중의 정치적 의식의 흐름을 포착할 수 있는 훌륭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선거 결과에 대한 분석과 선거에 임했던 민중운동 진영의 관점 및 태도에 대한 평가를 주되게 서술할 것이다. 이 평가가 이후 민중운동 세력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평가를 시작하고자 한다.

필자가 바라 보기에 선거 결과는 동일한 문제의 서로 다른 표현, 즉 동전의 양면이며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두가지 현상을 축발시켰던 하나의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선거 결과 민자당은 전체 866석 중 65.1%인 564개의 의석을

고통과 정치권에 대한 불신만을 야기 시켜 왔다. 91년들이 발생한 수서비리, 뇌물위유, 폐물방출 사건 등은 이러한 민중의 불만을 한층 고조 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강군 치사사건'은 화약고에 불을 붙인 계기가 되어 5월을 뜨겁게 달구었던

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후진성과 유약함을 보이고 말았으며 이로 인해 정치적 대안을 발전하지 못한 대중투쟁은 어떠한 성과물도 획득하지 못한 채 가라앉고 말았던 것이다. 이러한 격들의 경험은 동일하게 정권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진 민중들로 하여금 두가지 다른 표현방식을 채택하게 하였다.

한층은 현정권의 문제를 인정하지만 대안없는 충돌과 혼란보다는 '안정'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세력을 선택하는 것이었고 다른 한층은 자신의 제도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투표불참으로 표현한 것이었다.

정리하자면 이 두가지 결과가 동등할 수 있게 한 원인은 현 정권에 대한 불만과 그리고 그것을 대체할 대안 세력이 부재함으로



◇ 광역선거 '투쟁'보다는 '당선'에 집착해 선거혁명론적 편향을 배제할 수 없었다

실제적으로 5월 투쟁을 지도했던 '범대위'는 선거가 다가오면서 선거 불참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당시 점차 쇠락해 가고 있던 '범

대위'는 이러한 선언을 뒷받침할 구체적 계획과 집합력을 갖지 못했다. 그래서 이러한 선언에도 불구하고 각 대중조직별로 다양하게 선거 참여 방식에 대해 제출하고 이를 추진하였던 것이다.

전교조, 전농, 민중당 등은 후보 선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전대협은 '민자당 낙선 운동'을

동을 모색하지 않는 한 발전할 수 없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5월과 6월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교훈을 평가하고 정리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서 있다고 판단된다. 현재 운동 진영 내에선 전선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논쟁은 물론 5월과 6월에 드러난 민중 운동 진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한 방도이겠지만 5월투쟁과 6월 선거 결과에 대한 치밀한 평가 작업 없이는 다시 옛날의 전선체 논의의 오류를 되풀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어쨌든 새로운 격들을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예비하기 위한 노력을 다방면으로 경주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할 것이다.

송 하 경

(한국정치연구소 연구원)

정치적 대안부재로 나타난 민중운동세력의 한계

선거국면 통해 정치투쟁수준 상승·발전 모색해야

2. 선거 결과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번 광역선거 결과는 커다란 계두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민자당의 높은 득표율'과 '저조한 투표율'이 그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두고 혹자는 안정회구 세력이 국민의 절대 다수였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하고 혹자는 젊은 층의 '불건전한 시민의식'을 나무라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본질을 외면하는 현상적 평가일 뿐이다.

확보했다. 어느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자당이 압승한 원인에 대해 40%가 '시국안정을 바래서'라고 답하였고도 한다. 한편 41%가 넘는 유권자가 투표에 불참 하였으며 이는 원인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은 '제도권 정치에 대한 불신'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하나의 근본적 문제를 암시하고 있다.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을 한몸에 안은채 출범한 6공화국은 그러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채 물가상승, 정치권의 분열등을 통해 생활적

것이다.

사실 5월 한달 동안 우리는 민중들의 6공에 대한 분노를 충분히 감지할 수 있었으며 이는 민중운동 세력이 현정권을 대체할 세력으로 부상하지 않는다면 실패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민중운동 세력은 대중

부터 기인했다고 할 수 있다. '정권 타도'요구로 집약되었던 5월의 투쟁에서 대중에게 정권타도의 방식과 경로를 제출하고 이를 선두에서 지도하지 못했던 민중운동 세력에게 민중은 선거를 통해 가르쳐주었다 했던 것이다.

3. 광역선거에 임했던 민중운동 진영의 전술에 대한 평가

대위'는 이러한 선언을 뒷받침할 구체적 계획과 집합력을 갖지 못했다. 그래서 이러한 선언에도 불구하고 각 대중조직별로 다양하게 선거 참여 방식에 대해 제출하고 이를 추진하였던 것이다. 전교조, 전농, 민중당 등은 후보 선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전대협은 '민자당 낙선 운동'을

실천에 비중 뒤야할 '민주주의'

주의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한 셈이다. 즉 민중의 해게모니란 민중에 의한 권력의 획득이 없는 일시적으로 존재하더라도 안정적인 정치권력이 될 수 없으며, 곧 인식대중의 투쟁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을 설명해준다. 이번 소련사태도 소련민중의 투쟁과 저항을 통해 극복된 것이다. 어느 사회에서나 최초의 이니셔티브는 지식인, 지배세력, 기득권층 등이 제공하지만 이를 현실화하고 검증하는 것은 다

최근 소련이 사회주의 체제의 포기 와 시장경제제도 도입이 경제적, 정치적 혼란을 가중시켰지만 이는 일시적 현상일뿐, 체제자체의 변화까지 포함한 한 위로부터의 개혁에 대해 권력층 내에서 집단이 바뀌었다고 해서 사회가 변할 수는 없다. 현실적인 대안도 없이 국민들의 불만에만 자신들의 정당성을 호소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쿠데타 또는 이와 비슷한 상황을 통해 정권을 교체한 경험이 현대사의 대

그런 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 힘도 국민에게서 나오지만 민중의 해게모니가 보장되는 민주주의를 가능케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우리는 최근 소련의 상황에서 심각한 경제문제와 내부권력다툼 등을 기준으로 쿠데타의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뜯어보기에 앞서 어느 체제든 살아있는 민중의 투쟁이 역사와 사회의 진보에 실질적인 힘이 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현대사에서 국민의 동의가 없는 정권이 민중들의 강력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체제를 유지했던 것은 또다른 요인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정권의 정당성을 획득할 수는 없으며 경제성장 또는 이데올로기 지배를 강화하더라도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와 권력투쟁을 저지할 수는 없다. 쿠데타로 획득한 권력은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하면 실패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이번 소련사태에서 교훈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소련사태를 분석하는데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민주주의는 자국민들의 투쟁을 통해서 비로소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결과로 받아들이는 것이 소련 사태를 보는 좀 더 솔직한 시각일 것이다.

정치권력과 국민의 힘

를이민 민중의 실천적 행동임을 우리 는 알 수 있다.

심각한 자국민 경제문제의 해결과 사회주의의 대의를 내걸고 소련전력과 전세력을 혼란속에 빠뜨렸던 군부 및 보수파 일각의 쿠데타는 8인 국가비상위원회가 이렇다한 개혁조치와 정책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내외적 저항에 의해 실패했다. 특히 즉각 반대투쟁에 나선 시민들의 저항은 이들이 권력을 가진 국가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동의 또는 의식적인 실천이 없는 민주

부본인 우리나라의 경우엔 소련사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한 입장에 각기 다르겠지만 성공 하려는 우경화된 개혁정책에 따른 부작용을 해결하려는 사회주의 체제의 복귀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이와 달리 자신의 기득권과 위치에 위기를 느낀 군부와 강경보수파의 폭력적 준동으로 보는 입장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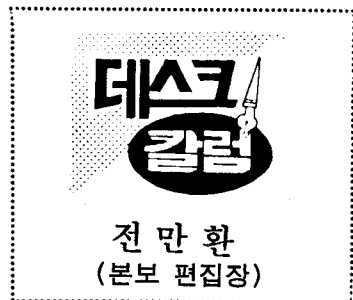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민중들은 국민적인 동의와 절차를 무시한 권력에 지지하지 않을 뿐만아니라



"남과북 하나된 더이상 미룰수 없다"

현 장 취 재

범민족대회가 지금 비록 반쪽대회일지라도 우리는 남과 북이 하나되는 범민족대회를 위해 어떠한 폭압속에서도 대회를 사수해 내리라. 그통일의 날은 분명코 남과 북이 하나되어 춤추는 그날이리라. (지난 14일 범민족대회 통일국민광경) (송보영記者)



국민의 동의가 없는한 정치권력은 정상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파시즘 국가나 쿠데타 정부를 당위적인 국가체제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어떠한 국가라도 국민의 지지가 보장되지 않는한 일시적이고 폭력적으로 권력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민중들의 저항에 부딪혀 제멸되고 만다.

역사과정에서, 현재 제3세계 국가들에서 많이 보고 있으며 국가체제의 혼란은 지배계급으로부터 야기될뿐 민중으로부터의 요구나 투쟁에 의해 야기되는 않는다.

'민주주의'는 이념이나 체제보다 민중들의 인식과 실천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을 지난주에 있었던 소련의 쿠데타사건을 통해보았으며 알 수 있다. 아무리 좋은 제도와 체제를 가진 국가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동의 또는 의식적인 실천이 없는 민주

“나의 직책은 원유달러...”

정보에 대한 정확한 분석력과 종합적인 판단력이 요구되는 원유달러

지 금 시간 밤 11시... 컴퓨터에서 연신 토해내는 기계음만이 동료들 모두가 퇴근한 사무실의 고요함을 깨뜨리고 있다.

국제정세의 기류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하는 국제원유시장에서 원활한 원유수급을 위해 손익을 다지며 거래를 성사시켜야 하는 나의 직책은 원유달러...

컴퓨터를 통해 시시각각으로 입수되는 국제원유시장의 동향을 분석하고 원유의 품질, 가격 등을 비교, 예측하여 산유국에 구입의시를 타진하고 원유를 구입 하기까지의 숨막히는 긴장의 연속이다.

신입사원 해외전지훈련에서 맺은 인연으로 수월해진 비즈니스

오늘은 원유수입국 다변화 전략의 일환으로 접촉한 중국측 석유회사로부터 받은 거래조건에 대한 결정사항의 검토가 끝나면 퇴근이다. 마침 이번에 거래하게 된 중국측 회사와는 남다른 인연이 있다. 2년전, 국제적인 감각과 안목을 키우기 위해 참가한 신입사원 해외전지 훈련시 방문했던 회사와 비즈니스 파트너가 될줄이야!



'89 해외전지훈련중 북경전안문광장에서

이번 거래상담은 한층 수월해질 것을 기대해 보며 해외전지훈련시 중국에서 맺은 인연들을 되새겨 본다.

선경에서 오셨습니까? 세계 반갑습니다!

우리 일행을 열심안고 반겨준 하얼빈 한인들과 나누었던 따뜻한 동포애. 23시간 동안 만주별관을 가로지르며 중국의 거대함을 다시금 일깨워준 하얼빈별 배아정행 열차. 살아 움직이는 중국무역의 전초기지 상하이. 가시근 거울잠에서 중국을 깨어나게 만든 수도 베이징에 남달려민 민주화와 개방의 물결들 모두가 소중한 체험으로 남아있다.

내게 처음으로 세계를 알게해준 신입사원 시절의 해외전지훈련... 지금도 귓가에는 아득히 펼쳐진 만리장성에서 광활한 대륙을 향해 목청껏 외치던 패기의 함성이 메아리쳐 들려 오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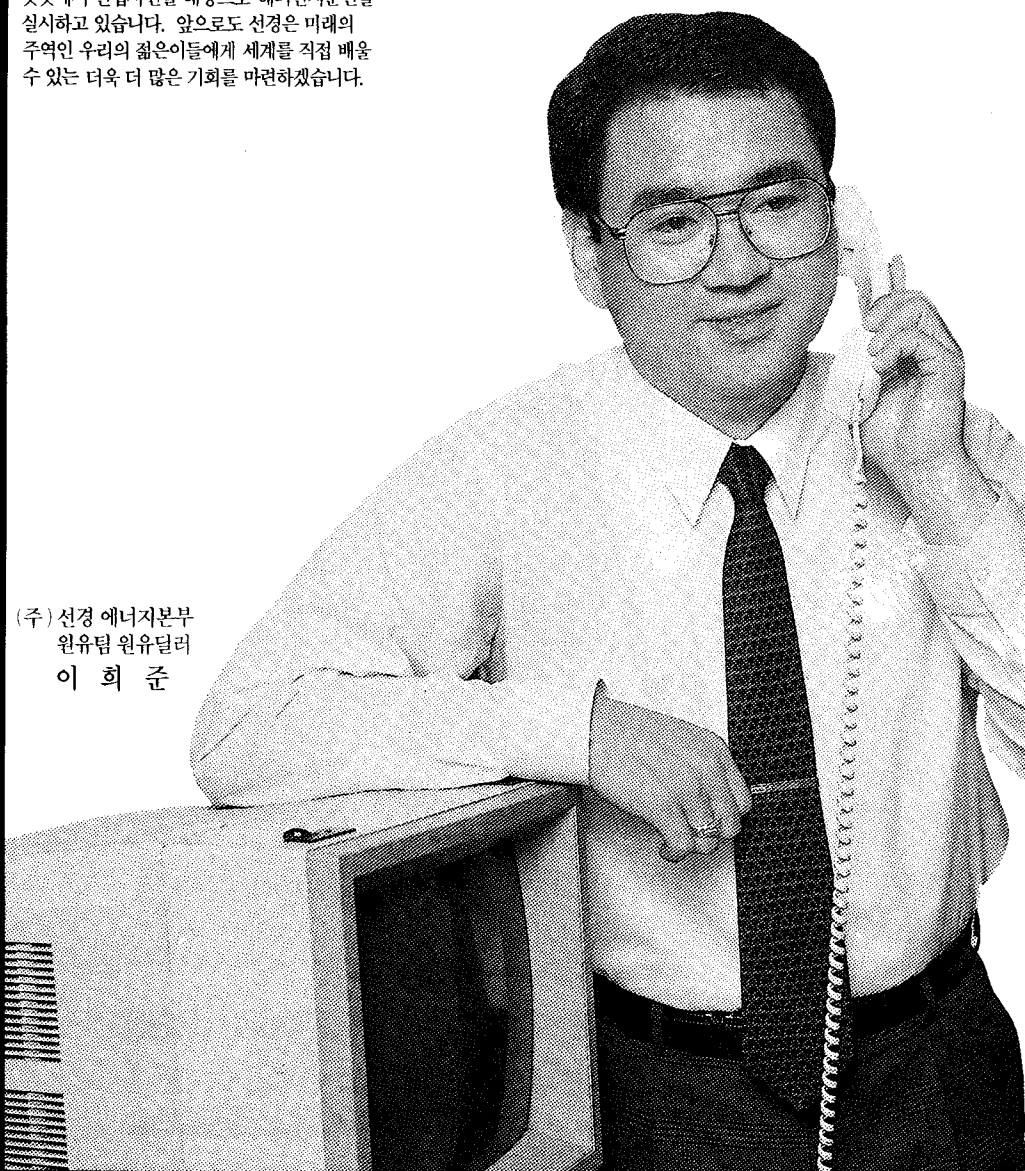
오늘 퇴근길에 서쪽하늘에 밝히는 별을 볼 수 있을까?

SUNKYONG
鮮京그룹

(주)선경·선경인더스트리·(주)SKC·선경매그네틱·세라유키칼·선경건설·(주)유광·유광해운·(주)유광가스·유광아코화학·(주)유광상사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세계를 직접 배우게 하는 일 - 선경이 하고 있습니다.

선경은 국내 최초로 중국, 일본, 동남아 등 세계 곳곳에서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해외전지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경은 미래의 주역인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세계를 직접 배울 수 있는 더욱 더 많은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주)선경 에너지본부
원유팀 원유달러
이 회 준